

똑똑한 농업 '스마트 팜' 확산 속도 낸다

농식품부 4711억원 들여
2017년까지 시설원에 40%
스마트축사 700동 구축

스마트 파머 8000명 육성
ICT 창조마을 50곳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이 최근 여주시 은아목장을 방문해 스마트 팜 축산 현장을 둘러본 뒤 이곳에서 생산된 빵을 시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스마트 폰이나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팜이 뜨고 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이다. 스마트팜을 이용하면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기존 관리방식보다 덜 투입하고도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2일 "4711억여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ICT 융복합 첨단농업·행복한 농촌 조성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조농업 희망의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팜 기반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수박·파프리카·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시설원예분야는 2017년까지 현대화한 온실면적(1만500ha)의 40% 수준인 4000ha를 스마트 온실로 바꾸게 된다.

또 시설원에 4000ha, 축사 700호 등을 구축해 생산성을 30% 높일 계획이다. 또 ICT 기반 행복한 농촌 확산을 위해 창조마을을 50곳도 만든다.

축산분야는 지난해 양돈을 시작으로 올해 양계 등 단계적으로 스마트팜 적용 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젓소·한우 등의 생산성 향상에 로봇차 유기와 자동포유기 등을 일괄 지원하는 스마트축사를 도입한다. 2017년까지 축산농가 전업농의 10% 수준인 700호까지 스마트 축사를 늘릴 계획이다.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노지 스마트팜 사업화는 대규모 과수원을 중심으로 추진해 2017년까지 600여개 농가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수출재배단지 ICT 융복합 첨단온실 지원 예산을 올해 246억원에서 내년 454억원으로 늘리는 등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 제품의 상용화 수준이 낮아 비싼 외국산 제품 점유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비용·고효율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보급에 나선다.

참외·수박 재배용 단동간편형 모델은 올해 6월 개발이 완료돼 재배농가에서 실증 실험 중이다. 딸기·오이에 적합한 연동복합형 모델은 올 하반기까지, 토마토 등에 알맞은 수출첨단형 모델은 내년까지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스마트파머 8000명을 육성하고, 전문컨설턴트 120명, 기업 등을 육성하게 된다. 기업, 대학, 농진청, 전문가 등을 망라하는 산·학·연·관 참여 '농식품 ICT 확산 협력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을 확산하면 우리 농업의 약점인 고령화, 일손 부족 등을 극복하고 자본·기술 집약적인 미래농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FTA 확대 등 완전 시장개방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으로 농가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산업의 고도화와 IT융합 서비스 확대에 오는 2017년까지 컨설팅·농기자재 기업 등에서 약 2700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축사육업 등록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농축산식품부 시행령 개정... AI 등 방역관리 효율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식당 등에서도 발생해 농가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방역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가축사육시설 면적 10㎡ 이상 15㎡ 미만

인 가금류 사육농가는 내년 4월 13일까지 지자체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축산업 허가 시설·장비 기준에 농장방역실과 축사 전실 등을 신설하고, 울타리·차량·방문자 등에 대한 소독·방역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농장 1㎡당 적정 사육 규모를 10마리에서 9마리로 줄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더 효율적으로 차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각 농가는 축산업 허가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농식품부는 당부했다. /연합뉴스



광주 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 40명 초청

농관원 전남지원 한과 제조 체험행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지난 20일 학부모단체, 주부 등 등으로 구성된 광주 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 40명을 초청해 체험 행사(사진)를 했다.

전통식품 인증업체인 (주)안복자한과에서 진행한 이번 전통식품 현장체험 행사는 전통식품 인증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로 개척을 위해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식품, 술 품질인증, GAP인증·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 등록 등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과의 제조방법 등을 살펴봤다.

전남농관원 신동하 지원장은 "전통식품 인증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체험과 홍보로 전통식품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임직원 '사회봉사의 날' 농촌일손 돕기 구슬땀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근)는 21일 광주지역 농협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봉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

농협 임직원들은 광주관내 북광주·평동·삼도·본량·서광주 등 5개 지역의 11개 농가의 농작업 현장에 투입되어 부족한 농촌인력을 지원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근 본부장은 "나눔 문화를 실천하여 농협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이마트 '국산종자 지원' 2탄 무안 양배추 25% 할인판매

이마트는 21일 "국내 개발 종자인 무안 양배추를 기존 양배추보다 25% 싸게 선보인다"고 일 밝혔다.

이마트는 우수한 국산 농수축산물을 발굴해 더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인 '국산의 힘 프로젝트'에 따라 양파에 이어 두 번째로 양배추를 선택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통되는 양배추의 85% 이상이 일본산 종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마트는 국산종자를 쓴 무안 양배추를 15만통 계약 재배해 이달 22일부터 산하

매장에서 기존 양배추보다 25% 산 1통당(1.5kg 이상) 1480원에 판다.

국산 종자 양배추는 재배 단계에서 크게 자라는 비율이 높고 잎이 부드러워 주스나 샐러드 등 생식용으로도 먹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는 국내 종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국산 종자 양배추에 이어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국내 개발 종자를 농식품부와 함께 선정해 판로 제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10월 31일까지)

상 담 문 의
010-3605-5000

담양 금성면, 송학랜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산 2-5번지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구, 송학랜드)
- 시세/감정가 - 30억 정도
- 급매 - 17억 2천만원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 연 2.1%, 월 이자 220만원)

금호동 7층,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시광병원 사거리 맞은편 코너)
- 7층중 7층 전체, 건 120평, 사면유리, 전망최고
- 과거, 뷔스바(7080) 운영
- 시세/감정가 - 7억 정도
- 급매 - 5억 2천만원 (유자 3억 6천만원 포함)

경매투자자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돈·빌려주실 분! 1순위 근저당 설정 연 10%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